

박형준 “지역주도 인재양성 공감… 지방대 매개 역할해야”

〈부산시장〉

교육부 라이즈 사업 긍정적 평가
“중앙 바라보기식 정책 아닌
수평적 협력체계 강화 중요”

“산업 인력 양성이 중요하고 지방대가 매개 역할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지난 21일 부산시청에서 교육부 지역혁신 대학지원체계 부산 간담회에서 교육부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라이즈)로 참여된 지역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지 물음에 이와 같이 답했다.

대학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교육부가 갖고 있던 대학의 재정 집행 권한을 광역시도로 이양하는 내용의 라이즈 사업을 통해 지역 특성과 산업을 위한 인재를 육성하겠다는 기대감을 드러냈다.

구체적으로 교육부 등 중앙 부처가 맡아 오던 대학 재정지원사업 예산 2조원 규모를 2025년부터 광역시도에 설치하는 전담 기관이 맡아 관



박형준 부산시장이 지난 21일 부산시청에서 열린 교육부 지역혁신 대학지원체계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리하고, 예산을 어떻게 쓸 지, 어떤 대학에 투입할지에 대한 계획도 지자체가 대학과 협력해 구상하도록 한다.

교육부는 그동안 중앙 정부 주도의 대학 재정지원사업이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과 지방대를 살리는 데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설명해 왔다.

박 시장도 이런 방향성에 공감을 나타냈다. 그는 “중앙 집중적 정책 통

해서 시책을 따라가게 하는 사업은 중앙정부 바라보기식 정책”이라며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역 내 수평적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게 중요하고 의사결정 권한을 지역 협력체계 주는 게 맞고,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원광해 부산테크노파크 지산학협력단장에 따르면, 부산 지역의 지역 내총생산(GRDP) 비중은 전국 대비 4.7% 수준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최

근 5년간 법인 순유출(191개), 지역 대학·대학원 졸업자 감소(4000여명)도 이어졌고 졸업생의 42.5%가 서울, 수도권 등 지역 바깥으로 취업해 유출되는 상황이다.

지산학협력센터를 운영하는 부산 테크노파크 김형균 원장은 “지역 기업이 강소형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 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은 자금, 연구개발도 아니고 인재”라며 “지역사회 기업은 필요한 인력을 적재적소에 공급받는 게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라이즈는 그런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지역 대학들도 공감을 나타냈다. 간담회에 참석한 도덕희 한국해양대 총장은 “지난해 17%였던 편입생 비율이 올해 30%로 늘었다”며 “취업이 잘 되니 은퇴하더라도 전문직 지속할 수 있는 게 특성과 분야라는 점을 학생들도 알고 있는 결과라고 생각한다. 대학은 특성화에 매진해야 한다”고 호응했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경북도

‘전통시장 봄봄봄 페스티벌’ 개최

경북도와 경상북도경제진흥원이 전통시장 온라인 마케팅사업의 하나로 네이버와 함께 ‘경북 전통시장 봄봄봄(가봄, 사봄, 와봄) 페스티벌’을 진행한다.

이 페스티벌은 다음달 19일까지 3주간 네이버에 개설된 ‘경상북도 전통시장 특별관’에서 진행되며 입점된 30여개 점포 상품을 3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 아울러 네이버 쇼핑의 ‘기획전’ 또는 ‘동네시장 장보기’ 메뉴로 도내 전통시장 상품을 특가로 구매할 수 있다.

이 페스티벌은 동네시장 장보기(권역 1일 배송)와 전국배송(일반 택배)이 가능한 도내 전통시장 30여개 점포를 선정해 상품할인, 장바구니 할인 등 행사와 함께 개별 점포 홍보도 병행한다.

/경북=이상호 기자

영덕군 강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영덕군은 관내 중소기업의 맞춤형 역량 강화지원 사업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23년 강소기업 육성 기반 구축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사업 대상은 영덕군에 소재한 중소 제조기업으로, 4개 기업에 개별 최대 1450만 원을 지원하게 된다. 지원내용은 중소기업의 수요를 반영한 디자인 개발, 홍보물 제작, 제품생산, 마케팅 지원, 인력양성지원, 컨설팅 지원, ESG 경영 등의 매뉴얼사업 7개 분야 25개 지원 사업이며, 해당 기업은 필요에 따라 분야를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다.

/영덕(경북)=김종철 기자 kimjongseol@

양산시 폐수처리시설 국제숙련도 ‘우수’

양산시시설관리공단 공공폐수처리시설은 최근 미국 환경자원학회가 주관하는 국제숙련도 평가에 참가해 수질분야 우수 분석기관으로 선정됐다.

국제숙련도평가는 수질분석 능력 향상과 측정분석 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공인된 국제숙련도 시험기관에 의뢰해 능력을 검증받는 국제 공인 프로그램으로 매년 전 세계분석기관이 참여하며, 공단 환경시설팀은 COD, BOD, TOC 등 모두 6개 항목에서 ‘만족’을 받으며 수질분야에 대한 측정 및 분석 능력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

/양산(경남)=이도식 기자

“구룡포 대게축제 놀러오세요”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 국토위 소위 통과

포항시 4년만에 축제 개최
할인 이벤트, 시식행사 마련

지난 4년간 코로나19로 개최되지 못했던 ‘구룡포 대게축제’가 다시 열린다.

포항시는 대게 생산의 중심지, 포항 구룡포에서 대게 축제 ‘2023 구룡포 어서오시게’를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개최한다.

구룡포 과메기 문화거리 아라광장에서 열리는 이번 축제는 구룡포 대게의 브랜드 명성을 전국에 알리고 관광객에게 품질 좋은 대게와 붉은대게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할인 이벤트와 무료로 맛볼 수 있는 다양한 시식 행사를 마련했다.

25일 오후 5시부터 열리는 개막식에서는 ‘대게 축제 거리퍼레이드’와 구룡포 설화를 바탕으로 만든 주제공연 ‘FieryDragon: 구룡의 비밀’을 만나 볼 수 있으며, 아홉 마리의 용이 하



정미애를 비롯한 인기 트로트 가수 박성연, 민영화 등이 출연해 개막 축하공연을 펼치며 개막식의 하이라이트를 장식할 예정이다.

구룡포 아라광장 인근에는 인기 드라마 ‘동백꽃 필 무렵’ 촬영지인 일본인 가족거리와 과메기 문화관, 호미곶 새천년기념관 등 포항의 대표적인 관광지가 인접해 있어 행사와 주변 관광지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최고의 주말 가족여행코스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포항(경북)=이상호 기자 leesh0412@

늘로 승천하는 모습을 표현한 ‘라인로켓 퍼포먼스’도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미스트롯 시즌1 출신 가수

대구시 전체위 등 신속진행 방침

대구는 지역의 오랜 숙원이었던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이 국회 첫 번째 문턱인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 심사소위원회를 21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대구시는 특별법의 필요성과 원안 통과를 위해 국토위 여야 의원뿐만 아니라, 기재부, 국토부, 국방부 등 관계부처와도 전방위적으로 협의와 설득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오늘 법안소위 심사에서 기부대양여차역의 국비지원, 신공항 건설 사업에 대한 여타면제, 종전부지 개발사업에 대한 인허가 의제 등 발의안의 핵심 내용이 반영되는 등 국가지원의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원활한 공항 건설의 활로가 확보됐다.

대구는 앞으로 남은 국토위 전체



대구시 산격청사 전경 사진

회의와 법사위, 본회의 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여야 정치권을 대상으로 마지막까지 전심전력할 예정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역의 오랜 숙원이었던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의 법안소위 통과를 환영한다”라며, “그동안 함께 노력해 주신 여당 지도부와 국토위 위원과 지역 국회의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국회 본회의까지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대구=김상복 기자 ksb8100@

완도군, 30일 ‘해양 치유도시’ 비전 선포

완도군은 오는 30일 완도군 생활문화센터에서 ‘대한민국의 건강한 삶을 선도하는 해양치유 완도 관광’ 비전 선포식을 개최한다.

선포식에는 국내 여행사 및 유관기관 관계자와 인플루언서 및 유튜버 등 전국의 MZ 세대, 문화관광해설사, 문화관광해설가, 음식점·숙박업 종사자, 완도군관광발전협회 회원 및 군민 등 2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군은 올해 해양치유산업 핵심 시설인 해양치유센터의 본격적인 운영과 대규모 행사·축제 개최에 앞서 관광 비전을 선포함으로써 관광 인지도 제고와 경쟁력을 강화하여 관광

산업을 활성화하고자 선포식을 마련하게 됐다.

선포식은 국악양상블의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신우철 완도군수의 ‘완도 관광’ PT, 국내 여행사 및 유관기관과의 해양치유 완도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 체결이 진행된다

군은 이번 행사가 단순한 이벤트를 벗어나 국내 여행사와 유관기관 대표 등을 대상으로 해양치유와 전복따기 등 완도의 관광자원을 체험하게 함으로써 국내외 관광객 모집을 위한 상품 개발과 홍보·마케팅의 기회로 삼는다는 방침이다.

/완도(전남)=이대호 기자 eogh7505@

전남교육청 “학교 공기청정기 신속교체 지원”

교직원노조 교체지연 지적 대응

전남 도내 일선 학교 공기청정기 교체작업이 늦어져 학생들의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 전라남도교육청이 신속한 교체 작업을 위한 ‘정상 지원’을 약속했다.

22일 전라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전국교직원노조 전남지부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계약해지로 재계약하게 됨에 따라 도내 유·초·중·고 공기청정기 지원사업이 지연되어 학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주

장했다.

이에 전남교육청은 재설치를 위한 계약 추진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시·군 교육지원청에 안내하고, 현장 설치 시 현장검사 및 검수를 강화하기로 했다.

전남교육청은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체없이 재계약을 추진하고 공기청정기 현장설치 시 검사·검수 강화, 학교 현장과 소통을 통해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교육지원청에 재차 안내했다.

/전남=양수녕 기자 ysn6313@